

KR 가족과 함께 가고 싶은 곳

## 해수욕은 기본, 역사·자연 체험을 겸비한

'여행엔터' **물** 강화도

어린 아이들이 안전하게 노는 해수욕장  
청정 갯벌을 품은 깨끗하고 넉넉한 바다

바다가 바다를 버려야 섬을 만들 듯 일상의 집을 벗어 버리면 여행의 매력  
을 온전히 나누주는 곳이 섬이다. 짜증스런 무더위보다 더 무서운 피서객도  
바다 건너 섬으로 가면 왠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람보다 바다와 숲이 더  
여유로운 풍경을 만들어주는 탓이다. 하지만 섬으로 가지나 오지 하나, 여  
행길이 부담스럽다.

섬으로의 여행길이 부담스러운 이들을 위한 최고의 피서지로 강화도를  
추천한다. 서울에서 2시간 안팎이면 닿는 짧은 거리, 아름다운 해변이 있  
고 신나는 생태체험을 할 수 있는 갯벌이 있다. 여기에 마음  
을 추스르기 좋은 사찰과 역사탐방을 위한 해안의 방어시설  
은 덩이다.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큰 섬 강화도가 품고 있는 유일  
한 해수욕장이 동막해변이다. 2002년 개통된 초지대교를  
건너 남부해안도로를 따라 TV 드라마 '오남매'의 촬영무  
대였던 동검도, 섬 방어시설이었던 택지재단 등의 바다 풍  
경을 감상하며 도착한 동막해변은 서해안의 여느 해수욕  
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잔잔한 파도에 바닷물이 넘실대고, 더위를 피해 찾아온  
여행자들도 북적인다. 신기한 것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  
이 바다 멀리 들어가 있다는 점이다. 동해의 해수욕장에서  
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이유를 알아보니 수심이 낮고  
경사가 완만해서 가능한 일이다.

해변의 길이가 200m 정도로 짧은 해수욕장이지만, 다른  
해수욕장에 비해 넓은 바다 풀장을 지녔다. 작지만 큰 해수  
욕장인 셈이다. 수심이 낮으니 어린 아이들이 비교적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  
흙이라면 백사장 폭이 10m로 좁은 게 흠이다.

그래도 해변을 따라 방풍림으로 조성된 소나무 숲이 뜨거운 햇빛을 막아주는 차양막이  
되어 주고, 텐트를 칠 수 있는 아늑한 보금자리가 되어 여행자를 편안하게 반긴다. 캠핑  
하면서 해수욕을 하기에 너무나 좋은 조건이다. 소나무 아래 벤치는 일몰이 황홀한 해수  
욕장 풍경을 감상하기에 좋은 장소가 된다.

동막해변의 물은 동해나 남해의 해수욕장에 비하면 탁한 색이다. 갯벌을 품은 바다여  
서 푸른 바다, 에메랄드 빛 바다를 기대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물이 깨끗하지 않다는 것  
은 아니다. 세계 최고의 청정 갯벌을 품은 만큼 자연 생태계가 살아 있는 바다다. 그러니  
바닷물도 깨끗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밀물 때에는 바다에 뛰어들어 파도를 타고 물장구를 치며 신나게 놀다가, 물이 빠지기  
시작하면 물놀이가 아닌 갯벌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은 동막해변이 갖춘 최고의 장점이다.  
강화도 남단에 펼쳐진 갯벌은 무려 59.5km<sup>2</sup> 된다. 물이 빠지면 직선 4km까지 갯벌이 드  
러난다. 햇빛을 받은 갯벌은 은빛으로 빛나고, 바다는 그 갯벌을 품어 넉넉하다.

동막해안은 이런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 유럽 북해 연안, 캐나다 동부 해안, 미국 동  
부 조지아 해안, 남미 아마존 강 하구 해안과 더불어 세계 5대 갯벌로 꼽힌다.

(레일&뉴스 이정우 기자)



### 경조사

- 오병수 건설본부장 병부상  
발 인 : 2011년 8월 30일
- 영남본부 건설처 백성실사원 병부상  
발 인 : 2011년 8월 25일
- 애익사업본부 중곡지사 조수현차장 병부상  
발 인 : 2011년 8월 30일
- 관리본부 노무복지사 김진선사원 부친상  
발 인 : 2011년 8월 23일

## 성과관리처 '2011년 전국품질경진대회 금상 수상'을 위한 워크숍 개최

기획조정실 성과관리처(처장 박인서)는 지난 11~12일까지 2일간 오송 홍보교육관 소회의실에서 2011년 전국품질경진대회 본선에 진출한 중앙기술단 궤도지기팀과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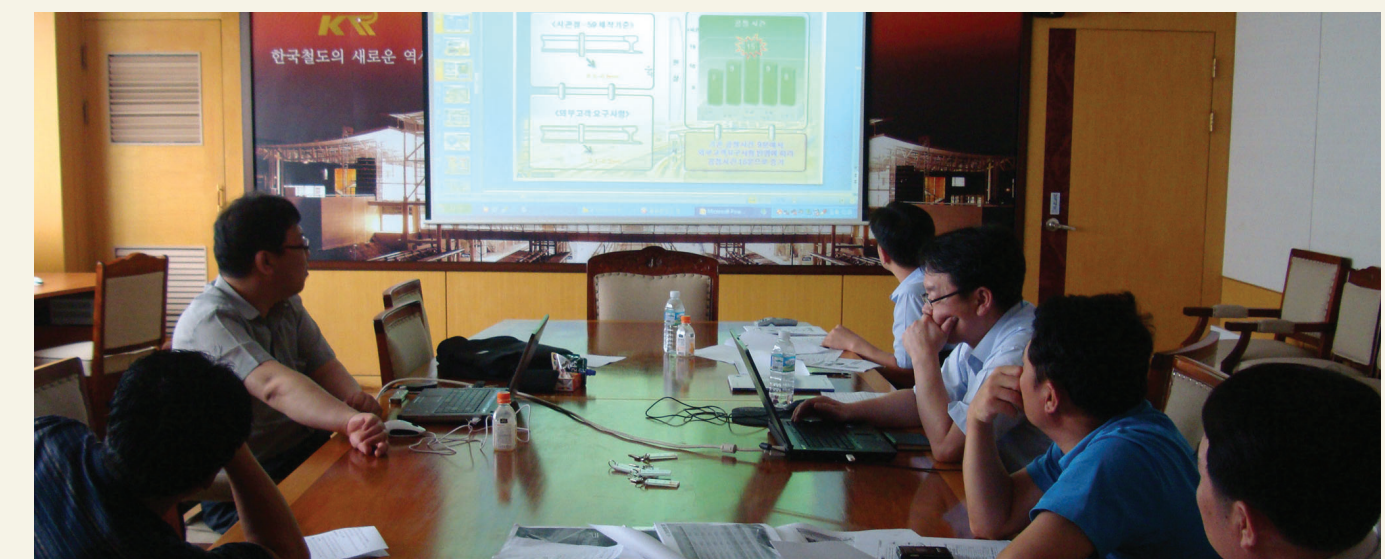
이번 워크숍은 8월 25일에 시행하는 전국품질경진대회에서 발표할 '장대레일 저부연마공정 시간 단축'이란 주제에 대한 발표자료 작성 및 사전 발표 등을 시행하였다.

이번 전국품질경진대회는 2010년도에 금상을 수상한 중앙기술단 궤도지기 학습CoP에서 예선을 거쳐 8월 25일에 본 선대회에 출전하게 되었다. 궤도지기팀은 공단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학습조직으로 대·내외 우수한 성과

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성과 뒤에는 구성원들 모두가 한 마음 한뜻으로 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가 있었다.

워크숍을 마치고 돌아온 후 박인서 처장은 전략경영/혁신부 직원들에게 지난 해 경험을 토대로 우리 공단의 학습 CoP 활동을 널리 알릴수 있는 기획의 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격려했으며 또한, 2012년에는 신지식경영 시스템 구축을 통해 공단의 학습 CoP활동이 한 단계 더 도약 할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할것을 당부하였다.

앞으로도 성과관리처는 활발한 학습활동을 통해 공단 대·내외 지속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 나갈 것이다. (기획조정실 송창현 기자)



## 도전, 지속가능경영대상!

- 제6회 지속가능경영대상 응모 -

기획조정실 성과관리처(처장 박인서) 전략경영/혁신부는 지난 25일 제6회 지속가능경영대상에 응모하였다.

지속가능경영대상은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이 주최하고,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정책연구원, 한국표준협회, 지속경영학회가 주관하는 국내 최대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행사이다. 공단은 지난 2008년 제3회 지속가능경영 대상에 공모하여 혁신경영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올해 도전은 두 번째 도전이다.

공단은 2007년 유엔 글로벌콤팩트에 가입하고, 2008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출간한 이후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벌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단은 지속가능경영대상에 공모하기 위해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경제, 환경, 사회적 전략을 포괄하는 2020 미래 경영전략을 재정립하였다.

그리고 2020 미래 경영전략을 실천하기 위해 미래 경영전략의 계량 및 비계량 지표를 내부 부서평가 지표로 전환하여 이의 달성을 유도하고, 그 달성도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지속가능경영대상에 공모하기 위해 가장 핵심적인 체계가 경영전략이라면, 가장 중요한 서류는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이다. 성과관리처는 지난 4월부터 16개 관련부서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직접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작성하여 최근 전소속과 국내외 기관에 배포하였다. 또한, 올해부터 새로 제출해야 하는 국정과제 이행성과 보고서도 작성하였다. 국정과제 이행성과 보고서는 R&D 투자, 기후변화 대응, 일자리 창출, 동반성장 노력 등 정부에서

주진하는 주요 국정과제를 공단 이 얼마만큼 선도적으로 이행했는지를 서술한 보고서이다. 제출서류 마감에 따라 9월에는 서류 심사, 인터뷰, 현지 실사, 10월에는 최종심사가 진행되며, 11월에 최종결과가 발표된다.

공단과 같은 공공기관이 수상할 수 있는 지속가능경영 대상은 지식경제부 장관상,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상, 한국표준협회 회장상, 지속경영학회 회장상에 국한된다. 즉, 객관적으로 볼 때에도 수많은 응모기업 중 4위 안에 들어야 수상이 가능한 매우 어려운 도전이다. 이러한 도전을 손조름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성과관리처 한 부서만이 아닌 많은 부서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할 것이다.

금번 지속가능경영대상 도전을 통해 공단 지속가능경영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과시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기획조정실 양희연 기자)

| 부서               | 시상내역             |
|------------------|------------------|
| 기업인 부문 (2명)      | 기업인 부문(대통령표창)    |
|                  | 기업인 부문(국무총리표창)   |
| 지식경제부 장관상 (4명)   | 공기업비영리기관 대상      |
|                  | 중소기업 대상          |
|                  | 최초보고서발간 대상       |
| 중소기업청 장관상 (3명)   | 중소기업 지역사회부문 최우수상 |
|                  | 중소기업 노사부문 최우수상   |
|                  | 중소기업 환경부문 최우수상   |
|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상 (3명) | 매년기업 최우수상        |
|                  | 공기업비영리기관 최우수상    |
|                  | 최초보고서발간 최우수상     |
| 한국표준협회 회장상 (2명)  | 매년기업 우수상         |
|                  | 공기업비영리기관 우수상     |
| 지속경영학회 회장상 (3명)  | 윤리경영상            |
|                  | 사회책임경영상          |
|                  | 혁신경영상            |
|                  | 창조경영상            |
|                  | 지속경영연성(개인/가족부문)  |

## 신지식경영시스템 구축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기획조정실 성과관리처(처장 박인서) 전략경영/혁신부는 지난 11일 본사 교육장에서 각 본부 및 차별 혁신업무 담당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지식경영시스템 구축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보고회는 프로젝트 수행기관인 KMAC 최우영 책임연구원(컨설팅 부문)과 (주)날리지큐브 박성대 위원(KM시스템 개발부문)의 발표에 이어 참석 직원들의 질의응답 순으로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되었다. 본 프로젝트는 개인활동 중심의 기존 지식경영활동에서 공단의 비전목표 달성을 위한 '부서단위 학습조직 중심'의 지식경영활동으로 경영성과를 창출하고, 임직원간의 자유로운

학습 과정을 거쳐 공단의 지식경영활동이 경영전략과 연계되어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신지식경영시스템이 고도화된다면, 지식경영활동의 효율화를 통한 업무 생산성 향상, 수평적 의사소통 채널 구축으로 임직원간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과 지식공유를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전문분야 지식의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위한 학습조직 운영으로 자율과 창의의 조직문화 정착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임직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속에 공단의 고도화된 신지식경영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기획조정실 최영수 기자)



수평적 의사소통을 통한 지식교류 및 피드백 활성화와 협업으로 실행중심의 조직문화 구축을 위하여 계획되었다. 4개월에 걸쳐 지식경영 Trend 분석 및 핵심이슈에 따른 선진기업 벤치마킹, 학습조직 중심 지식 및 제안 활동을 위한 추진전략 수립, 임직원간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위한 Social Network System 구축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착수보고회에서는 이러한 수행 과정을 설명한 바, 이에 대한 직원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보인 가운데 토론이 진행되었다. 향후 성과관리처는 직원들의 의견수

## KR, ISO 26000 최고수준 평가 획득

- 2011 KR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

기획조정실 성과관리처(처장 박인서)는 지난 22일 이해관계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단의 2010년도 경제, 사회, 환경성과를 정리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이하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공단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한다는 의미에서 2007년 2월 유엔 글로벌콤팩트에 가입하였고, 가입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2008년 최초로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이번 보고서는 2008년과 2010년에 이은 공단의 세 번째 보고서이다.

이번 보고서를 공단이 직접 작성함에 따라 공단 16개부서 전담팀원들의 역량수준이 향상되었고, 외부 용역기관의 역할 축소에 따라 큰 폭의 예산을 절감하였다. 또 경제, 사회, 환경분야별 성과기술에 의거하였으나, 이해관계자의 중요성 평가에서 관심이 집중된 친환경 철도 건설, 안전제일주의, 글로벌 경영을 스페셜 리포트로 작성하여 이 부문을 크게 부각하였다. 이에 따라 공단의 지속가능경영 활동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단 CEO는 세 번째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지속가능경영을 더욱 강화하여 국민에게 존경과 사랑받는 공공기관으로 발전함과 동시에 철도 르네상스를 맞아 글로벌 철도기관으로 도약할 것이라며 천명하였다. 보고서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의 국제표준을 정한 GRI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이해관계자별 경제, 사회, 환경분야의 활동과 성과를 담고 있으며, GRI가 권고하는 지표 대부분을 공개하고 제3자 검증을 충실히 이행하여, 공단은 사회적 책임 이행 최고수준인 IV단계를 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경제분야는 철도건설을 통한 경제적 가치 창출과 해외 철도시장 진출을 통한 신규 수익사업 성과 등을 담고 있고, 사회분야는 고객만족경영 및 윤리경영 활동과 성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공헌활동, 동반성장 성과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환경보

하는 Eco-Green 철도 구현을 위한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CDM(청정개발체계) 사업 추진, 생태계 복원사업 노력 등을 강조하였다.

공단은 올해 상반기에도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건설공기업 선정, 국민 신문고상 대통령상 수상, 수도권 고속철도 착공 등 지속가능경영의 성과를 본격적으로 창출하고 있다. 공단은 이번 보고서를 국내외 400여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철도브랜드 및 기업이미지 제고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과관리처는 향후 매년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전년도 실적을 다음연도에 출간하는 점을 감안하여 보고서 발간 시기를 상반기로 앞당기고, 보고서에 필수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보고서 콘텐츠를 풍부하게 만드는 방법 등으로 보고서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지속가능경영대상에 도전하여 공단의 지속가능경영 이행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계획이다. 매년 발간되는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통하여 국내외 이해관계자들과 공단의 지속가능경영 의지를 효과적으로 소통하기를 기대해본다.

(기획조정실 신소연 기자)

